

■ 논문 ■

밀로셰비치와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오승은(한성대학교)

I. 들어가며: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주범인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지 올해로 19년이 됐지만,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자체가 ‘인위적인 산물’ 이어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가하면, 반면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는 결코 필연적이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치로 인해 와해되는 비운을 맞았다는 주장도 있다.¹⁾ 해체가 필연적이지 않았음에도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서구 음모론’에서부터 시작해, ‘폭력적 민족성’,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실패’, ‘경제 위기’, ‘티토 사후 정치적 공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 각기 특정 분야를 조망하고 있다.²⁾

- 1)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는 Stevan K. Pavlowitch, *The Improbable Survivor: Yugoslavia and Its Problems, 1918-1988*, Hurst, 1988.
- 2)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서구 음모론으로는 Davorin Rudolf, *Rat koji nismo htjeli, Hrvatska 1991* (Zagreb: Nakladni zavod Glubs, 1999), pp.19-35; Bogdan Denitch, *Ethnic Nationalism: The Tragic Death of Yugosla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52.; Rodney Atkinson, “Yugoslavia and its Enemies, 1903-1998,” 222.1335.com/serbian/html(검색일:2009년 10월20일); Marko Attila Hoare, “Nothing Is left”, *Bosnia Report*, No.36, (2003), p.32; Sabrina Ramet, “Yugoslavia and the Two Germans”, in Dirk Verheyen, *The Germans and Their Neighbor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328 참조. 둘째, 공산주의 해체와 같은 외적 요인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해선 James Gow, *Triumph of the lack of Will: International Diplomacy and the Yugoslav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Sabrina Ramet, “The Yugoslav Crisis and the

그리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šević) 세르비아 대통령이 서있다. 1980년대 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그에 따른 해체전쟁(1991~1995)을 치르는 과정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이끌며 유고슬라비아를 파탄으로 이끌고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 넣은 주범으로 치부되어왔다. 2001년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유엔국제전범재판소(the UN War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 3월 사망할 때까지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도 밀로셰비치이다. 서구 주류 입장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소수의 서구 학자들과 언론인은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를 해체 시킨 주범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를 해체위기로부터 구해내려 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다.³⁾ 더 나아가 밀로셰

West: Avoiding ‘Vietnam and Blundering into ‘Abyssinia’,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8, No.1, (1994), pp.189-219 참조.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서는 첫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간의 구원’을 조명하는 연구가 있다. Robert Kaplan, *Balkan Ghosts: A Journey Through History*, (New York: Vintage, 1994); John Keegan, “A primitive conflict only anthropologists can understand”, *Daily Telegraph*, 1993년 4월 15일 혹은 같은 저자의 책 *A History of Warfare*, (London: Pimlico, 1993), p.6, pp.55-56. Mark Mazower,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New York: Vintage, 1998), p. xiv에서 인용 참조. 둘째, ‘남슬라브인들의 폭력적 민족성’을 언급하는 논의가 있다. Arnold Suppan, “Yugoslism versus Serbian, Croatian and Slovene nationalism”, Norman M. Naimark and Holly Case, (ed), *Yugoslavism and its Historians: Understanding the Balkan Wars of the 1990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128 참조. 셋째, ‘경제적 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논의에 대해서는 Rika Harris, *Na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Politics of Slovakia and Slovenia*, (Aldershot, England: Ashgate, 2002), p.16, Susan L. Woodward, *Socialist Unemploy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Yugsolavia, 1945-199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352, 355, 359, 364.가 있다. 넷째, ‘민주화’ 실패를 드는 요인으로는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olitical Identities and Electoral Sequences; Spain, the Soviet Union, and Yugoslavia,” *Daedalus*, Vol.121, No.2, (1992), p.126.이 있다. 이들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합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기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이들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 했다가 보다는, 다른 요인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작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좀 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Noam Chomsky, “Chomsky Comments on Milosevic Ouster,” Thursday,

비치는 서구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 진행되는 악마화 작업(demonization)의 희생자로 보고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전직 미국 법무부 장관 램지 클락 Ramsey Clark, 불가리아 인권 위원장 벨코 발칸노프(Velko Valkanov) 등의 인사들은 <밀로셰비치를 변론하기 위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to Defend Slobodan Milošević)>를 수립하여 밀로셰비치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석방’을 요구하였다.⁴⁾ 비판적 성향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롤드 핀터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밀로셰비치를 위한 예술가들의 청원(Artists’ Appeal for Milošević)” 운동에 참여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⁵⁾

그렇다면 이렇게 밀로셰비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만큼 유고슬라비아가 처했던 역사적·정치적 상황이 복잡하며, 단순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이다. 그 복잡함을 염두에 두고 유고슬라비아 문제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이라는 두 가지 사건 내지 과정을 분리해서 고찰해보는 것이다. 두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동일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회자되었던 이야기처럼 ‘체코슬로바키아처럼 평화롭게 해체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밀로셰비치는 가 아니었어도 ‘유고슬라비아는 해체의 수순을 밟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티토가 자신의 사후를 예상하고 수립코자 했던 1974년 신헌법은 밀로셰비치가 부상하기 이전 이미 유고슬라비아의 정치 향방을 결정할 중대 사건이었다. 즉 기존의 연방(federation)을 더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confederation)으로 바꾸고자 한 신헌법 체제의 실현은 궁

October 12, 2000, <http://www.zcommunications.org/chomsky-comments-on-milosevic-ouster-etc-by-noam-chomsky>(검색일: 2010년 9월 27일); Michael Parenti, *To Kill A Nation: The Attack On Yugoslavia*, (London: Verso, 2000); The “Demonization of Slobodan Milosevic,” December 2003, <http://www.michaelparenti.org/Milosevic.html>(검색일: 2010년 9월 27일); Edward S.Herman and David Peterson, “The Dismantling of Yugoslavia: A Study in In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a Western Liberal-Left Intellectual and Moral Collapse),” *Monthly Review*, Vol. 59, No. 5, (October 2007).

4) www.icdsm.com

5) “Free Milosevic, says Pinter”, *The Guardian*, Thursday 26 July 2001, <http://www.guardian.co.uk/world/2001/jul/26/warcrimes.balkans1>, (검색일: 2010년 9월 26일).

극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가속화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제기됐었다. 신헌법이 발표되자, 유고슬라비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가 ‘2024년까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예상했던 것만 보아도 신헌법이 가진 파괴적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티토 사후의 가중되는 위기 속에서 밀로세비치의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도 민족주의는 다시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역사적 국가 소유권pravostvo’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집권하였다. 밀로세비치의 정치적 부상은 다른 공화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부활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였지만, 그가 없었더라도 민족주의 세력이 성공적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일단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치하는 상황 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견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밀로세비치가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고슬라비아 해체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고슬라비아 해체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꼭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⁷⁾ 그럼에도 실제로 전쟁을 구상해 실행해 옮긴 것이 밀로세비치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상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민족주의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6개 공화국 전역에서 발흥 하는 상황 하에서, 평화적인 타협점과 전쟁 이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전쟁의 불가피성을 떠나,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배후 조종한 세력이 밀로세비치임은 확실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저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을 분리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밀로세비치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재건’

6) 질라스는 1974년 가진 한 인터뷰에서 ‘2024년이 될 때까지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4개국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전환 될 것이며, 후에 별개의 독립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Milovan Djilas, “A World Atlas for 2024”, *Saturday Review-World*, 24, August 1974, p.25, Sabrina P. Ramet., ‘Explaining the Yugoslav meltdown, 1’, p.735에서 인용.

7) 이런 입장으로는 Laura Silber and Alan Little, *The Death of Yugoslavia*, (London: Penguin, 1995), Nora Beloff, *Yugoslavia: An Avoidable War*, (London: New European Publications, 1997) 참조.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과 ‘남슬라브 공동국가’ 유고슬라비아

원래 밀로셰비치가 원한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그럼에도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해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상관없이 아니라,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1987년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의 연방의 재건을 내건 이유는 티토와 같은 ‘빨치산 혁명세대’의 진정성 정치가 작용해서는 아니었다.⁸⁾ 티토 사후 무주공산의 유고슬라비아 정치에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는, 다시 말해 ‘제2의 티토’가 되겠다는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야망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세르비아 민족 문제’ 해결이었다. 1980년대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위기와 그에 따른 해체 가능성의 대두는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Srbi izvan Srbije)’라는 문제를 다시금 야기시키고 있었다. 1919년 베르사이유 체제 수립 이후 동유럽 많은 국가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한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동포의 양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⁹⁾ 세르비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인구의 1/3은 세르비아 공화국 밖(주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공동 국가 안에서 세르비아 민족문제는 수그러드는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¹⁰⁾ 1970년대 논의를 이끌었던 세르비아 지식 엘리트 중의 한명인 유리치(Mihailo Đurić)의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 공화국 세르비아의 현 국경은 민족적이지도 않고 세르비아 민족

-
- 8) Louis Sell, *Slobodan Milosevic and Destruction of Yugoslavi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제4장 “A New Tito” 참조.
- 9) 베르사이유 체제 이후의 동유럽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Mark Mazower,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London: Vintage, 1998), 제 2장 “Empires, Nations, Minorities” 참조
- 10) 19세기 민족주의가 동유럽에서 발흥된 이후,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제국에 사는 크로아티아인을 중심으로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남슬라브인들을 한 데로 규합하여 남슬라브인들의 공동 국가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Barbara Jelavitch, *History of the Balkans: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Ivo Goldsteine, *Croatia A History*, (C.Hurst & Co., 2001); Ivo Banac, *The national question in Yugoslavia: origins, history,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의 역사적 국경과 일치하지 않음은 명백하다.....세르비아 민족은 (연방)5개 공화국 중 4개 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 중 단 한 군데서도 세르비아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세르비아 사람들이.....다시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순간에 세르비아 사람들은 현 사회주의 세르비아 공화국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¹¹⁾

1974년 개헌으로 제정된 신헌법은 이 오래된 세르비아 민족문제를 다시 대두 시키고 이었다. 신헌법 하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연방(federation)이라기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더 가깝게 재구성되었다. 군사권과 외교권을 제외하고 각 공화국은 이제 거의 별개의 국가(quasi-state)로써 기능하게 되었다. 독립국가화 된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의 처우 문제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르비아 민족엘리트나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이었다. 이런 우려는 유고슬라비아가 1980년 이후 위기에 직면하면서 더욱 현실로 나타나는 듯했다. 1986년 9월 <세르비아 학술원Srpska Akademija Nauka i Umetnosti>이 발표한 『비망록(Memorandum)』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¹²⁾ 후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상징 문서처럼 되어버린 이 『비망록』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은 자신들의 언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

정치적 야망을 키우고 있던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학술원이 발표한 『비망록』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용성을 간파하였다.¹⁴⁾ 위로부터는 세르비아 공산당 지도부가 세르비아인들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능력을 질타하며, 반(反)관료주의 개혁을 일으키고, 밑으로부터는 억압받고 위기에 처한 세르비아 민족의 수호자로 자처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치

11) Mihailo Đurić, “Smišljene, smutnje,” *Anali Pravnog Fakulteta u Beogradu*, 3, 1971, p.231, Dejan Guzina, “Socialist Serbia’s narratives: From Yugoslavia to a Greater Serbi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17, No.1, (Fall 2003), p.97 인용.

12) Kosta Mihailović and Vailije Krestić, *Memorandum of the Serb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Answers to Criticisms*, (Belgrade: Serb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1995)

13) *Ibid.*, pp.116-140.

14) *Ibid.*, p.103.

아젠다로써 십분 활용하고자 하였다.¹⁵⁾ 일단 권력을 잡은데 성공한 밀로셰비치는 1974년 헌법을 폐지하고 다시 중앙집권적 권력이 강화된 연방으로 유고슬라비아를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권한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약한 세르비아, 강한 유고슬라비아(slabo Srbija, jaka Jugoslavija)’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면, 밀로셰비치는 그것을 뒤집어 ‘강한 세르비아, 강한 유고슬라비아(jaka Srbija, jaka Jugoslavija)’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¹⁶⁾ 밀로셰비치는 집권 후 바로 코소보와 보이보디나 두 자치주의 자치권을 강압적으로 박탈하며 세르비아에 재통합시켰다. 또한 연일 ‘진실의 집회(Miting istine)’라는 관제 집회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열며, 이미 정통성을 상실한 타 공화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공화국은 세르비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치주와는 달랐다.

19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위기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만 자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의 정통성 약화는 그동안 반체제 인사로서 탄압을 받았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등의 민족주의 세력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1960년대 말 터진 크로아티아 민족 불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있던 후 크로아티아의 재야 세력은 오랜 기간 정치적 침묵(Hrvatska šutnja)을 지키고 있었다.¹⁷⁾ 1980년대 말 이 정치적 침묵을 깨며 민족주의 재야 세력은 정치무대로 돌아오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민족주의 사학자 투지만으로, 1989년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라는 신생정당을 세워 크로아티아

15) Slavoljub Đukić, *Kako se dogodio vođa, Filip Visnjić*, (Beograd, 1992).

16)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소속된 6개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중 유일하게 세르비아에만 2개의 자치주(북쪽에는 보이보디나 Vojvodina), 남쪽에는 코소보(Kosovo)를 설립하였다. 제1차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세르비아의 힘을 대폭 줄이고자 한 조치였다. 그런 만큼 세르비아의 민족 불만은 티토 집권 시절 내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aura Silber and Allan Little, *Yugoslavia: Death of A Nation, revised and updated*, (London: Penguin Books, 1997), pp.58-69 참조.

17) Seung Eun Oh,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Croatian Nationalism*,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2002), p.64.

민족주의 동원에 나섰다.¹⁸⁾ 같은 해 보스니아에서는 무슬림 민족주의 선동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알리야 이제베고비치가 <민주행동당 (Stranka demokratske akcije)>를 창당하며, 정치 무대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웃한 동유럽 국가들에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족적인 재야세력이 복귀하고 있었다면, 재야세력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에선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으로 넘어서면서 각 공화국에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 세력은 공식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변신하였다. 이에 유고슬라비아의 정치구도는 1980년 말까지만 해도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의 대항관계’로 규정된다면, 1990년대가 되면서 ‘민족주의 세력 대 민족주의 세력의 대립’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정치구도가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로 바뀌자,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문제는 연방이 너무 느슨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주장하며 유고슬라비아의 재연방화를 주장하였다. 그러자 크로아티아의 투지만 대통령이나 슬로베니아의 쿠찬 대통령은 ‘연방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생긴 문제이므로 유고슬라비아를 국가연합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¹⁹⁾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보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재건은 사실상 세르비아의 재건과 다름이 없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아닌 ‘세르비아-슬라비아(Srbislavia)’를 의미했다. 이렇듯 입장이 다른 상황 하에서 밀로셰비치가 이끄는 연방파와 反(반)밀로셰비치가 이끄는 연합파가 합의점을 찾기는 못내 어려웠다.

III. 밀로셰비치와 ‘대(大)세르비아’ 건설

새로운 목표: 대(大)세르비아 건설

1990년 1월 제14차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임시총회의 실패를 계기로 연방파와 연합파간의 협상은 희망이 없음이 명확해졌다. 이때부터 그간 협상용 카드로만 제시되었던 ‘대(大)세르비아(Velika Srbija)’ 건설은 현실

18) *Ibid.*

19) Marcus Tanner, *Croatia A Nation Forged in Wa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²⁰⁾ 그간 밀로셰비치는 협상에 임하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탈퇴 한다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도로 하여금 민족자결권을 행사 각각의 공화국으로부터 탈퇴, 모국인 세르비아 공화국에 합류시키겠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크로아티아에는 전체 크로아티아 인구의 11.6%에 해당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보스니아에는 전체 공화국 인구의 31%에 달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원래 소속된 공화국에서 떼어내 세르비아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간 밀로셰비치는 1974년 헌법에 명시된 연방 탈퇴권을 포함하는 자결권을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 ‘공화국’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대(大)세르비아’ 건설을 주장해왔었다. 세르비아 주간지 『브레메(Vreme)』의 밀란 밀로셰비치(Milan Milošević)가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大(大)세르비아 건설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고슬라비아 최대 민족, 세르비아의 힘을 지나치게 확신하며 오만하게 협상을 밀어붙인 결과, 결국 大(大)세르비아 건설의 실현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²¹⁾

밀로셰비치가 주창한 ‘대(大)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동남부 지역(크라이나 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면해있는 동남쪽 지역)과 북동부 지역(슬라보니아 지역, 세르비아와의 북서쪽 국경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을 말한다. 크라이나(Krajina) 지역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남쪽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大(大)세르비아를 건설한다면, 세르비아의 국경선이 중간에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서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고 있었다.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가 지닌 군사적 우위에 힘입어 전쟁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유럽 5대 군대’로 손꼽히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이 밀로셰비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1991~1992년

20) *Ibid.*

21) 본 연구자가 2003년 1월 15일 베오그라드에서 행한 개인 인터뷰.

22)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티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함께 유고슬라비아를 지탱해주는 3대 버팀목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상황 하에서 연방의 강화를 주장하는 세르비아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밀로셰비치가 처음에 내세운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강화와 보존이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자연 밀로셰비치의 목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지도부는 밀로셰비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만, 이미 군 통제권은 밀로

사이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계 주요 인사들과 나눈 통화가 도청되었는데, 밀로셰비치가 1991년 8월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라도반 카라쥐치(Radovan Karadžić)와 나눈 통화에 이런 자신감이 잘 드러난다. “우리는 강력해.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수립할 수 있어..... 누구든지 우리와 싸우고자 한다면 오라고 그래. 우리가 더 강력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²³⁾

우선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의 선동과 규합에 나섰다.²⁴⁾ 이들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에게 유고슬라비아는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았다. 이들은 수백 년간 크로아티아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민족주의가 발흥될 때마다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 받게 됨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가장 폭력적인 것은 2차 대전 당시 크로아티아 극우 민족주의자 우스타샤(Ustaša) 손에 의한 대량 학살 경험이었다. 그런 만큼 유고슬라비아 체제 위기는 이들의 존재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었다.²⁵⁾ 특히 전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40%를 차지하는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Krajina Serbs)의 불안감은 컸다. 크로아티아 민족세력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이들 크로아티아 거주 세르비아인들에게 밀로셰비치의 선동 작전은 쉽게 먹혀들어갔다. 선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의 선동과 규합에 나섰다. 세르비아의 주간지 『브레메』 편집자 밀로쉬 바시치(Miloš Vasić)에 따르면, 밀로셰비치는 언론 플레이를 이용하여 ‘크로아티아에 사는 세르비아

세비치에 넘어가 있었다.

23) 이 도청 자료는 2004년 6월 헤이그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ICTY)에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Josip Gludrić, “Inside the Serbian War Machine: The Milošević Telephone Intercepts, 1991–1992”,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 23, No. 1, (February 2009), p.94에서 인용.

24)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발칸반도를 거쳐 서진(西進)함에 따라 합스부르크 제국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현재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영토에 군사 국경선을 세워, 세르비아인들을 이곳에 이주 시켜 일종의 ‘인의 장막’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주해온 세르비아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이들에게 군사방어의 의무를 부과시켰다. 이후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 영토에 거주하게 되었다.

25) 전쟁 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의 혼란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Ejub Štikovac, “Croatia: The First War,” Jasmina Udovički & James Ridgeway, (ed), *Burn This House: The Making and Unmaking of Yugoslav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 154–163.

인들(Hrvatski Srbi)’을 자극하여 민족분규를 일으키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1년 3월 15일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의 모든 시장을 소환한 회의에서 크로아티아에서 민족분규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였다.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을 벌여 크로아티아에 사는 세르비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새로운 대량학살’의 위험에 처했음을 납득시키고자 하였다..... 이제 이 계획은 밀로셰비치의 수중에 있었다.²⁶⁾

동시에 밀로셰비치는 밀란 마르티치(Milan Martić)와 밀란 바비치(Milan Babić)와 같은 이 지역 하수인들을 통해 정치·군사적 조직화에 들어갔다. 세르비아 비밀경찰과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지원 하에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²⁷⁾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 정부 간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신생정당 크로아티아민주연합이 크로아티아에서 집권한 1990년 5월부터였다. 이들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보다 10배 이상이나 강한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충돌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쟁 발발하기 1년 반전인 1990년 4월 크로아티아 총선이 열린 직후부터 6월까지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 즉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Krajina Serbs)은 세르비아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크라이나, 슬라보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의 ‘자치지역’ 설립을 선언하여 정치적 조직화에 나섰다. 정치적 조직화는 군사적 조직화와 맞닿아 진행되었다. 세르비아인 다수지역에서 경찰관, 유고슬라비아 지역 방위 예비군, 지원자를 중심으로 하여 12,000명의 크라이나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1991년 봄 이 자치지역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epublika Srpska Krajina, RSK)로 승격되었다.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공식 선언하자,²⁸⁾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크로아티아군과 전쟁

26) *Yugofax*, 14 September 1991, Mark Thomson, *Forging war: the media in Serbia, Croatia, Bosnia and Hercegovina*, (Luton: University of Luton Press, 1999), p.81 인용.

27) Martin Špegelj, “The First Phase in War,” Branka Magas and Ivo Zanic, *War in Croatia and Bosnia-Herzegovina 1991-1995*, (London: Routledge, 2001), p.25.

2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무슬림 지도자 알리야 이젯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 대통령은 2월29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보스니아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투표자의 90%(총 유권자의 63%) 지지를 얻어 3월 독립선언을 했다.

상태에 돌입했다.

보스니아에서의 전쟁도 크로아티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밀로셰비치의 사주를 받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2년 전부터 정치, 군사적 준비에 들어갔다. 1991년 4월 26일 라도반 카라쥐치(Radovan Karadžić) 주도 하에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은 ‘보스니아 크라이나 자치시(Zajednica opština Bosanske Krajine)’의 설립을 공표하고 보스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바냐 루까(Banja Luka)를 본부로 선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자치지역은 1991년 가을까지 보스니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4월 7일 선언하자,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자치지역’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공화국(Republika Srpska)’으로 승격 선포하며 본격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²⁹⁾

전쟁수행의 주요 전략: 인종청소

전쟁의 목표가 ‘대(大)세르비아’건설이라면 전쟁의 주요 전략은 인종청소였다. 인종청소는 “대량학살과 추방, 의도적인 테러 행위, 약탈, 사회적 모욕, 집단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 지역이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다른 민족을 제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³⁰⁾ 유고슬라비아는 ‘모자이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인종분포가 복잡하기로 악명 높다.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 해도 온전히 세르비아 사람들만이 사는 지역은 없다. 거기에 더하여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히 보스니아에서는 표범 무늬 패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세르비아인들만을 위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29)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 뿐만 아니라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인들도 보스니아 무슬림 정부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들은 서부 헤르체고비나에 헤르체그 보스나(Herzeg Bosna)라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크로아티아와 통일하고자 하였다. 이들간의 전쟁은 1993년 본격화되어 1994년 미국 주선의 워싱턴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박사논문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Croatian Nationalism”, Department of War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2001), 제 6장 “Unification Nationalism: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The Pursuit of Greater Croatia” 참조

30) Mark Mazower,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07, No.4, (Oct. 2002), p.1162.

것은 비(非)세르비아 민족은 내쫓거나 죽이는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였다. 전쟁 목표를 ‘대(大)세르비아’건설로 설정하는 순간,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정해진 셈이었다.

크로아티아 전쟁의 대명사로 불리는 부코바르(Vukovar)에서의 싸움을 보면 왜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에 ‘인종청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베오그라드에서 80km 떨어진 부코바르는 1991년 7월 17일부터 유고슬라비아 인민군과 밀로셰비치가 조직한 사병(paramilitary) 조직 ‘체트닉’(2차 세계대전 대독일 항전을 한 세르비아 저항군)과 ‘티그레(호랑이들, Tigre)’의 집중 포화공격을 받았다.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었던 밀로셰비치는 별도의 준군사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은 전쟁기간 내내 민간인 학살과 약탈 등을 저질렀다.³¹⁾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포화가 시작되자 부코바르의 주민들은 부코바르 병원의 지하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부코바르는 함락되었고, 병원에 있던 420명의 환자는 크로아티아 정부군 하의 영토로 이송하기로 주선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명의 성인 남자는 어디론가 끌려가 학살되었다. 그리고 1992년 오브차라(Ovčara)라는 부코바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들을 묻은 임시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부코바르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되어, 부코바르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되었다. 세르비아군은 이렇게 크로아티아 영토임에도 자신들의 전쟁목표 지역에 사는 크로아티아인들을 내쫓고, 죽였다.

보스니아에서 인종청소는 더 잔혹하게 저질러졌다. 보스니아는 유고슬라비아연방 내에서도 가장 민족분포가 복잡한 곳임을 감안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보스니아 전쟁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보스니아 동남부에 위치한 스레브레니짜(Srebrenica)의 경우 1995년 7월 13일-19일 사이 8200명 이상의 남자가 학살당했다. 또한 여성들은 집단강간을 비롯한 성고문의 대상으로 삼아, 임신시킨 뒤 중절이 불가능할 때까지 수용소에 수용한 뒤 풀어주었다.³²⁾ 무슬림 사회에 ‘세르비아 민족의 씨’를 퍼트리겠

31) James Gow, *The Serbian project and its adversaries: a strategy of war crimes*, (C. Hurst & Co. Publishers: 2003).

32) Beverly Allen, *Rape Warfare: The Hi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Minnesota, Minneapolis·London: 1996), CID, *I Begged Them to Kill Me: Crime Against The Women of Bosnia-Her-*

다는 의도로 저질러진 일이었다.

IV. 나가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밀로셰비치의 ‘대(大)세르비아’ 프로젝트는 대실패로 끝났다. 크로아티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크로아티아 거주 세르비아인들이 주도가 되 일으킨 분리전쟁은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 정부가 역(逆)인종청소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994년 8월 대대적 군사작전(‘폭풍우Oluja’) 이들을 크로아티아의 영토로부터 몰아내었다. 2002년 크로아티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수는 4%로 나타났다.³³⁾ 1991년 인구조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으므로, 10년 만에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의 수가 1/3로 감소한 것이다. 보스니아에서는 1995년 11월 데이튼 평화협정의 체결로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역시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무력으로 세운 반군(叛軍) 공화국 ‘레벡블리카 스프스까(Republika Srpska)’가 종전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밀로셰비치가 원했던 데로 ‘모국 세르비아(domovina Srbija)’와의 통합은 이루지 못하였다.³⁴⁾ 앞으로도 통합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밀로셰비치가 의도치 않게 손을 대었던 ‘大(大)세르비아’ 건설은 모국 세르비아에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세르비아의 영토는 전쟁시작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2005년 세르비아와 ‘신(新)유고슬라비아연방’을 구성했던 형제 공화국 몬테네그로가 독립하였고, 2008년 2월엔 ‘세르비아 민족의 요람’이자, 세르비아 영토의 15%를 차지하는 코소보도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0년대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으켰던 민족주의 도미노 현상은 결국 세르비아 안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세르비아 국경선은 확대는커녕, 축소일로에 처하게 되었다. 살아생전 밀

zegovina, (Sarajevo: 2000). 우리나라에 2008년 개봉된 영화 <그르바비짜 Grbavica>를 통해 이들 강간여성 문제는 익히 알려진 바 있다.

33) “Croat census sparks ‘cleansing row’”, *BBC News*, 23 May 2002.

34) 데이튼 협정의 체결에 따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국가 2체제 상태이다.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가 이끄는 ‘보스니아 연방(Bosnian Federation)’이 그 한 체제이고, ‘레벡블리카 스프스까(Republika Srpska)’, 즉 ‘세르비아 공화국’이 또 다른 체제를 이루며, 병존 내지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로셰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르비아 민족의 꿈을 영원히 파괴해버린 ‘세르비아 역사 최대의 살인자’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참으로 역설적인 한 정치인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밀로셰비치 스스로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유고슬라비아 해체에 대한 주류 연구에서 보이는 ‘모든 책임의 밀로셰비치 전가 내지, ‘밀로셰비치 악마화 작업(demonization of Milosevic)’은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999년 이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전쟁 책임을 놓고 벌이는 국제형법재판소에서의 소송과 맞소송 사건이 보여주듯,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직 까지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³⁵⁾ 그러므로 밀로셰비치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는 손쉬운 희생양을 찾아 역사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겠다. 더군다나 밀로셰비치에 대한 악마화 작업은 밀로셰비치로 상징되는 사회적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문제와 불만을 가리고 왜곡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20만 명의 이상이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난민으로 떠돌게 한 유고슬라비아해체 전쟁의 모든 책임을 밀로셰비치 한 사람 탓으로만 돌리기에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크기 때문이다. 이에 도덕적 마녀사냥 보다는 좀 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35) Tatjana Tagirov “Srpsko-hrvatski odnosi; Tužbe, genocid i verbalne kamenice,” *Vreme*, BR 933 | 20. (Novembar 2008)

<Abstract>

Milosevic and Yugoslav War of Destruction

Oh, Seung Eun

The present paper aims to look into the role of Milosevic in the process of destruction of Yugoslavia. Milosevic has been much blamed and criticized for the destruction of Yugoslavia and the subsequent war of Yugoslav destruction from 1991-1995. And especially the West has put much effort on demonization of Milosevic as the main culprit of the destruction of Yugoslavia. But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the criticism on Milosevic should be restricted to the war of destruction, not the destruction of Yugoslavia. It should be noted that Yugoslavia would have proceeded to destruction, or so called natural death, even if Milosevic was not on the power stage. First, with Tito, there was no one to place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different national groups and ethnic groups under control. Secondly the 1974 Constitution saw to it that six republics should develop into quasi state, without the right to independent diplomacy and military control. Given such conditions, Yugoslavia would have been dismantled at certain point, following the death of Tito in 1980. Therefore, the paper argues that it was the West who mixed the two developments together and putting too much blame on Milosevic, for its political convenience.

narodna21@hanmail.net

주제어: 밀로셰비치, 민족주의,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Keywords: Slobodan Milosevic, nationalism, Yugoslavia, War of Yugoslav Destruction